장흥군 "성묘 배례를 사전에 드립니다"

장흥공설공원묘지서 귀성 자제 합동 성묘 실시

"고향 방문하지 못하는 출향향우 마음 달래"

장흥군은 지난 27일 장흥공설공원묘지에서 '코로나19 설 명절 귀성 자제를 위한 설날 합동 성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군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종순 장흥군수, 유상호 장흥군의회의장, 임성수 장흥부군수, 군 의원 및 간부 공무원 등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했다.

장흥군은 간단한 안내 사항을 청취한 후 차례(헌화 및 목례)를 지냈다.

출향향우와 공설공원묘지 유족을 대상으로는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출향향우들의 마음을 달래고,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설맞이 합동 성묘를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가까운 시일에 고향으로 직접 성묘를 드리러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군민과 공직자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223개 지자체 중에서 감염자가 제로인 '청정 장흥'을 유지하고 있다.

장흥군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로 철저한 감염원 차단을 꼽았다. 이를 위해 마을 방송 실시, 발판소독매트 비치, 호루라기 방역단·자치경찰 TF팀 운영, '식사 중 대화 금지' 스티커 부착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완도군,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감면 지원

신우철 완도군수가 '착한 임대료 챌린지'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완도군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1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46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7억 7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87개 사업체에 공공요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5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550-5232)로 연락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샤인머스캣 포도 농장을 방문해 재배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샤인머스캣 포도 재배 매뉴얼 배부

고품질 생산 위해 그림·사진 중심 구성 이해 농가 쉬워

강진군이 샤인머스캣 포도 재배 매뉴얼을 배부하고, 고품질 포도 생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매뉴얼은 향후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군 샤인머스캣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재고를 위해 제작되었다.

샤인머스캣 포도는 아삭한 식감과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유의 풍미와 높은 당도를 자랑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2016년 278ha에서 2020년 3,579ha로 크게 증가해 향후 단가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진군이 발간한 이번 매뉴얼은 고품질 샤인머스캣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이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농가에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매뉴얼은 강진군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고 있다.

군은 매뉴얼 배부를 포함한 재배농가 현장 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통한 명품 샤인머스캣 생산으로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뉴얼을 토대로 군과 재배농가가 합심해 최상급 샤인머스캣 포도를 생산함으로써 강진이 국내 최고의 생산지로 등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샤인머스캣 품질 향상을 통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목적으로 전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고, 판매망 확보를 위한 온라인직거래 시스템 구축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유통경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 무선동 한옥마을, 전통한옥 브랜드화 선정

해남군 무선동 한옥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대표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고,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전통음식, 공예, 전통놀이 등 한옥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선동 한옥마을에서는 전통문화체험, 자연치유음식체험, 지역관광 산업과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선동 한옥마을은 전라남도 지정 1호 민박마을로, 해남의 특산물을 활용한 자연요리와 청소년대상 미술요리, 고무신아트, 다예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현장 생생한 목소리 청취…간부공무원 현장 방문

이동진 진도 군수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개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세방낙조 관광명소화 사업현장, 진도향배후지, 남도진성, 아리랑마을관광지 등을 점검했으며, 또 신기지구 전원마을, 군내 농공단지, 녹진관광지, 바닷길체험관, 송군 투자선도지구, 돈지 울금가공사업소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평소 소통과 협치를 통한 사업추진을 강조해온 이동진 군수는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현장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는 올해 새로 부임한 윤영주 부군수가 동행해 관내 주요 시설물과 현안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 이어 2월 초에는 운림산방을 비롯 운림명승지구 관광활성화사업 대상지, 삼별초 추모관, 농산물가공센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아이스팩, 분리수거 해주세요"

내달 1일부터 수거함 10개소 시범 운영… 쓰레기 감소 기대

강진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강진읍사무소와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다.

강진군은 1월 29일 강진읍사무소와 다세대 공동주택 9개소에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훼손된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작업을 거쳐 강진읍시장 상인회에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매달 200kg(약 400개)가량 수거해 연간 2.4t의 일반쓰레기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